

<2025년 5월 7일 수요말씀>

오직 하나님 뜻대로다

본 문 :

<마태복음 26장 39절> “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
가라사대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
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”

할렐루야!

이번 주 주일에는

‘오직 나 하나님 뜻대로 살아라.’ 라는 주제로 말씀했습니다.

오늘은 ‘오직 하나님 뜻대로다.’ 라는 주제로

하나님의 뜻에 대해 연속 말씀합니다.

이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을 깊이 있게 깨닫고

하나님의 뜻대로 많이 행하여, 많이 얻기를 축원합니다.

(말씀 시작하겠습니다.)

◎ 하나님께서

“너희들이 기대한 것과 나의 뜻이 일치하지 않는다.

항상 너희가 바라는 생각과 내 생각은 다르니라.

더 좋게 해 주려고 다른 방법으로 하나니,

너희는 알 수도 없고, 알려 주지도 않는다.” 하셨습니다.

-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려면 뭘 하려고 하나님을 믿습니까.

사랑은 좋아하고 기뻐하는 것입니다.

하나님, 성령님, 주가 하시는 대로

순종하며 기뻐하며 사랑하며 따라가는 것입니다.

좋아 기뻐하는 그 강도대로

믿음도 마음도 굳건한 것입니다.

하나님을 사랑하고 기뻐 섬기는 것도

운동하듯, 공부하듯, 건축하고 개발하듯

자꾸 생각하고 연구해야 합니다.

자기 것은 자기가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.

- 농사도, 장사도, 각자 자기 사명도

하나하나 더 이상적으로 행하고,

더 이상적으로 때 놓치지 않게 부지런히 해야 합니다.

하나님께 속한 것은 예비하여 때맞춰서 해야 합니다.

그러면서 자기 것과 작은 일들을 자기 때에 맞춰 하며

부지런히 하나님 일을 해야 합니다.

- 자기만족에서 끝나지 말고 하나님 만족까지 해야 합니다.

작게 하면 작게 얻고, 크게 하면 크게 얻습니다.

세례요한은 여자가 낳은 자 중에 큰 자였습니다.

그런데 예수님을 제대로 증거하지 못해서

지극히 작다고 하였습니다.

(마 11:11) “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

한보다 큰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저보다 크니라”

증거자가 제대로 모르고 증거하면 작다 일컬음을 받습니다.
제대로 증거 못 하면 오히려 해가 됩니다.

하나님 일을 하여도 작게 하면 작은 자입니다.
모르고 하면 작은 자입니다.

꿈에 작은 뱀을 잡으면
“뱀 잡듯 작은 일을 하였다.” 함입니다.

- 하나님, 성령, 주가 하셔야 할 일은
하나님, 성령, 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지만,
자기가 할 일은 크나 작으나 자기로 말미암아 이루어집니다.

- 하나님은 한 환상을 보여 주시며
“너에게 준 것인데 왜 다른 자를 주냐.
그럼 내게 가지고 와라. 네게 준 것이다. 분별하여라.”
말씀하셨습니다.

하나님이 자기에게 줬는데 다른 자가 달라고 하니 줍니까.
다른 자 주라고 준 것이 아닙니다.
그럼 하나님은 “이리 가져와. 심정 모르는구나.” 하십니다.

하나님이 사랑하여 주시는데 그 심정 모르면
하나님과 성령과 주를 제대로 사랑하지 못하는 자입니다.
마음을 알아드리며 받아야 합니다.
물라주고 받으면 뺏깁니다.

자기 먹으라고 줬는데 준 자를 싫어하면 도로 뺏습니다.

○ 사랑은 심정의 세계입니다.

하나님, 성령, 주의 마음을 알아야 합니다.

절대 순종치 않는 자는 절대 사랑받지를 못합니다.

행여 과거 그때는 하나님께 잘해서 하나님과 사랑했어도
지금 못하면 끊어진 사랑입니다.

○ 충성으로 조건을 세워야 합니다.

하나님 뜻대로 받는 고난은 조건을 세우는 것이 됩니다.

추수 때에 거두게 됩니다.

기쁨으로 넘어가야 큰 산도 쉽게 넘어갑니다.

싫어하며 가면 힘듭니다.

모든 역경도 그러합니다.

◎ 이 세상에 해당하는 일은 육이 얻습니다.

하늘에 속한 것은 영과 혼이 얻고 변화되어

영이 그 갇춘 대로 영원한 세계를 얻습니다.

이 세상 일도 하고, 하나님께 속한 영적인 일도 하면
육도 얻고 영도 얻습니다.

○ 항상 지금이 중합니다.

과거 것, 지난날의 것은 얻고 끝났습니다.

섭리사도 과거 것은 지나갔습니다.

그 터전 위에 또 새것입니다.

새롭게 ‘지금의 일’을 해야 합니다.

그래야 새로 얻어 새 힘이 나고, 그것을 통해 또 변화됩니다.

과거에 행한 것 위에

이 시대 지금 이때 할 일을 충성하며 하는 것입니다.

- 구약에 해당하는 것은

그 시대에 행하고 얻고 살다 끝났습니다.

그리고 그 후손들이 선조가 하던 신앙생활을 하면서

구약시대의 것을 행하고 얻고 살아갑니다.

- 예수님 당세 신약인은

그 시대, 2천 년 전에 행하고 얻으며 살고 죽었습니다.

지금은 그 후손 신약인들이 행하여

신약시대의 것을 자녀권 대상이 되어 얻고 살고 있습니다.

- 섭리역사도 지난날 때에 따라 행하여 뜻을 이룬 것은 끝났습니다.

그 터전에서 받고 얻은 것을 쓰고 있습니다.

지금은 지금 이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때의 뜻을 펴고 있습니다.

이때가 중합니다.

때를 좇아 이때의 말씀을 듣고 행하면서 얻는 것입니다.

○ 사람이 살아가면서 그때그때 때와 기회가 오고 갑니다.

잘 의식하고 봐야 보입니다.

고로 지금이 중합니다.

성령도 성자도 예수님도 늘 “이때가 중하다.” 하셨습니다.

예비하고 준비하고 있다가 그때 행해야 합니다.

그때 못 하면 안 됩니다.

못 하면 후에 다시 오는 것도 있지만,
 대부분은 그 생활에 속한 것이 다시 옵니다.
 밥 먹는 것, 잠자는 것, 빨래하는 것, 씻는 것, 청소 등은
 그때 못 하면 다음에 할 수 있습니다.
 그러나 큰일, 하나님께 속한 일은
 그때 못 하면 절대 안 됩니다.
 고로 환난 때도 해야 합니다.

○ 지난날을 보기 바랍니다.

월명동 개발도 하나님이 구상해 주셨을 때,
 어려워도 그때, 기회 주셨을 때 실천했습니다.
 지금은 소나무나 작은 돌 사다 놓는 것 같은 작은 일은 하지만,
 큰 공사나 땅 사는 일, 건물 건축하는 일 등은 못 합니다.

○ 모두 과거를 생각해 봐요.

하나님 성령 성자 예수님과, 또 선생과
 그때 행한 것, 얼마나 잘했습니까.
 해 놓고 고난받음이
 안 한 것으로 고난받음보다 평생 영원히 낫습니다.

○ 매서운 환난의 때라도 창을 열고 과거 지난날을 보길 바랍니다.

어려움, 고통을 겪으면서도 몸부림쳐서 한 일을 쳐다봐요.
 하나님과 성령이 선생과 하신 작고 큰 일들을 봐요.
 그때 한 일을 지금은 못 합니다.

○ 지금은 지금의 일을 해야 합니다.

때가 바뀌어 겨울이 오면

봄에 씨 뿌리는 일은 못 하고, 겨울에 속한 일을 합니다.

모든 신앙의 삶도 그러합니다.

때 지나면 못 합니다.

하나님 역사의 일은 한 번의 기회입니다.

어느 때는 그 시대 못한 일은 다음 시대가 와야만 합니다.

다음 시대가 와서 후손들이 하지만,

그들도 그때 당세의 새 일을 해야 합니다.

○ 당년의 열매입니다.

산의 으름, 산포도, 머루, 다래는

그해에 커서 열매를 열고 익습니다.

그때 못 따 먹으면 새가 따 먹고 끝납니다.

선생이 젊어서 산기도 할 때 산의 열매를 따 먹고 살았습니다.

그때 못 따 먹은 것은 그걸로 끝났습니다.

전도도 그해 그 생명을 전도 못 하면 그해는 끝납니다.

깨닫고 전도해야 합니다.

○ 하나님의 때도 그러합니다.

자기가 원해서 때가 왔는데 그때를 못 맞은 것은

- 미련해서입니다.

- 몰라서입니다.

- 준비가 안 돼서입니다.

- 기도를 안 해서입니다.
 - 하나님과 주께 맡기지 않아서입니다.
 - 성령이 감동 주셨는데도
생각과 마음이 둔하여 깨닫지 못해서입니다.
- 하나님, 성령, 또 우리를 구한 자를 향한 사랑이 부도난 것은
그때 그 말씀을 행치 않고 중하게 여기지 않아서입니다.
- 그때 행할 일을 행한 자는
해 놓은 것을 귀히 여기고 관리해야 합니다.
그로 인해 환난 때 힘과 보람을 얻습니다.
못 한 자는 하나님이 다른 방법으로 도우시니
어서 기도하고 이제라도 행해야 합니다.
- ◎ 이제 여러분들이
가장 궁금해하는 문제의 답을 말씀해 주겠습니다.
- 자기는 될 것으로 생각하고 기도하고 간구했는데 안 된 것은
자기 인식, 생각이 잘못되어 자기가 자기에게 속은 것이지,
하나님이 속인 것이 아닙니다.
- 자기 생각과 인식을 잘못하고 기도하면 안 됩니다.
잘못 기도하는 자는
하나님이 안 해 주었다고 하고, 속았다고 합니다.
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여도
알 것을 온전히 알고 기도해야 합니다.

○ 사랑하는 자에게 간구하여도 안 해 주는 것이 있습니다.
 사고와 인식이 잘못된 상태에서 구하면 안 돕습니다.
 그래서 안 돕는 것인데 속였다고 오해합니다.
 하나님과 사람 사이도 그러합니다.

○ 어느 때 해 준다고 하고서 안 해 줄 때는
 여러 이유가 있습니다.

- 때가 안 돼서 안 해 주고,
- 혹은 다른 계획이 있어 더 좋은 것 해 주려 안 해 주고,
- 해 주면 오히려 후에 해가 되어서 안 해 줍니다.

○ 한 여자가 미래를 보는 차원과 생각의 수준이 낮아서
 자기 사는 집 옆에 겨우 땅 50평을 사서
 정원을 꾸미는 게 평생소원이었습니다.
 그런데 남자 애인이 돈도 많은데 그 소원을 안 들어주니
 너무 화가 나고 애인이 싫어졌습니다.

남자 애인은 왜 안 해 주는지 말도 없이 안 해 줬습니다.
 사랑하니 안 해 준다고만 했습니다.

남자 애인은 상상도 못 하는 곳에다 땅을 사고
 궁을 짓고 있었습니다.

자기 애인 것도 함께 짓고 있었습니다.

그런데 여러 사정상 비밀이라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.

또, 더 좋은 곳에 궁을 짓고 있다고 이야기해서
 그것을 보고 따르면,

물질적인 것 때문에 따르는 사랑이 되니 말하지 않았습니다.

- 내가 하나님을 절대 최고 사랑하여도,
아무리 기도를 많이 했다고 해도
하나님이 안 해 준다고 하지 말아야 합니다.
하나님은 “사랑하니 걱정 마라.” 라고만 하십니다.

- 하나님은 더 좋은 것을 주시려고
자기가 원하는 것을 안 해 주기도 하시고,
- 혹은 앞날의 계획에 큰 것과 재물 축복이 있어도
말해 주면 그것을 보고 따라오니
이야기를 안 하시고
오직 말씀만 보고, 사랑만 보고 따라오게 하십니다.

⇒ 이것이 하나님과 우리에게 크고도 은밀한 비밀입니다.

- 하나님이 앞날을 이야기 안 해 주시는 이유는
그것이 좋아 따라올까 봐서입니다.
그것 때문에 무언가를 행한다면
생각이 그것을 중심하게 됩니다.

오직 하나님의 권세와 사랑과
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만 보고 가야 합니다.

- 나머지,
물질, 명예, 그 어떤 것도 중심해서는 안 됩니다.
그러한 것들은 하나님, 성령과 주를 사랑하다 보면

따라오는 것들입니다.

이렇게 해야만 영적 사랑이 됩니다.

육적 사랑은 안 됩니다. 확실히 알아야 합니다.

- 앞날에 무슨 일이 있다고 해서 그 사건 보고 행하면
물질주의자 신앙이 됩니다.

하나님이 “하지 마.” 하시면

딱 그 말씀만 듣고 그 일은 하지 않고 모든 일을 해야
영적 신앙입니다.

이것을 하면 돈 번다고 해서 하면

그 결과를 보고 행한 것이니 육적 신앙이 됩니다.

“하지 마.” 해서 안 하면 하나님 보고 안 한 것이니
절대 신앙, 영적 신앙이 됩니다. 깨닫겠습니까?

고로 앞날에 어찌 된다고 말씀을 안 하십니다.

조건 보고 하면 육적 신앙입니다.

말씀 보고 따라 행해야 합니다.

- ◎ 세상을 살아가면서

사람도 알고, 환경도 알고, 존재물들도 온전히 알고 살아야
가다가 후회하지 않습니다.

모르고 살면 수고하여도 소원대로 안 됩니다.

전지전능하신 하나님도 온전하게 알고

신앙생활 해야 합니다.

모르고 신앙생활을 하면

오해하고, 신앙생활을 하다 말게 됩니다.

- 성경과 이 시대 말씀 전체를 자세히 보면
어떻게 살아야 한다고 다 말해 주었습니다.
사람 따라 그 대하신 것이 다 달랐습니다.
성장기 따라 대함도 달랐습니다.
- 부자가 천국에 못 간다는 말씀은
예수님이 그 청년에 대해서만 하신,
합당하고 맞는 말씀이었습니다.
그 청년은 자기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
예수님을 따라 제자가 되어야 하는 자였습니다.
그때 부자라고 해서 재산이 얼마나 됐겠습니까.
1억도 안 되었습니다.
마을에서 농사 많이 짓는 정도,
“저 집 부자야.” 하는 정도였습니다.

(마 19:21~24) “예수께서 가라사대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네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을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네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좇으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으므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약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”

이 말씀은 부자가 다 천국에 못 간다는 말이 아닙니다.

개신교, 천주교를 따르는 부자가 세상에 얼마나 많습니까.

다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습니다.

또 부자가 전도되게 하신 것입니다.

그러므로 부자 전체를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,
성경에 등장하는 그에게 해당하는 말씀입니다.

- 성경의 모든 말씀은 전체에 해당하는 것도 있고,
하나님도 예수님도 그 일에 해당하는 자에게만
해당하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.
이것을 쪼개서 풀어야 합니다.

섭리사 말씀도 한두 사람을 보고 한 말씀이 있습니다.

그에게만 해당하는 말씀이 있습니다.

그를 중심하여 그 일에 해당하는 자에게만
그 말씀이 해당하고, 나머지는 아닙니다.

또, 선생 말을 안 듣는 자에게만 해당하는 말이 있습니다.
없는데 하지를 않습니다.

성경 말씀도 기본적으로 모두에게 해당하기도 하지만,
이미 그 말씀을 순종하고 사는 자는 해당이 안 됩니다.
순종치 않는 자에게만 해당합니다.

- 또한, 시대를 분별해야 합니다.
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가 분별해야 합니다.
종 시대 - 자녀 시대 - 사랑의 신부 시대입니다.
하나님은 시대 따라 예정해 놓고,
그에 해당하는 하나님 뜻을 펴십니다.

그런데 시대 주인을 알고도 행치 않은 자는
그를 맞고도 고통을 받습니다.
알고 행하는 자는 많이 받고, 그 공력이 영원히 갑니다.

주인을 모르고
주인을 따라야 할 자를 주인이라 하며 따라가는 자는
주인이 나타나서 쫓아내십니다.
눈먼 소경은 하나님 앞에 합당치 않나니
늘 배우고 행해야 합니다.

- 하나님이 보낸 자만 시대의 머리가 됩니다.
하나님은 그를 밧줄로 삼고 모두를 구원하십니다.
이를 깨닫고 모두 하나님 뜻대로 행하기를 축원합니다.

평강을 빕니다.

(말씀 마쳤습니다.)